

웹툰을 오래 읽다 보면, 작품이 아니라 작가를 따라가게 된다. 데뷔작은 투박해도 세 번째 작품에서 폭발하는 작가도 있고, 장르를 옮겨 가며 세계관을 확장하는 작가도 있다. 문제는 작품과 플랫폼이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인기작이 재연재되거나 시즌이 추가되면, 예전 링크는 플로팅 공지로 바뀌거나 작품 페이지가 새로운 주소로 이전되는 경우도 잦다. 그럴 때 작가별 링크모음을 갖춘 독자는 헤매지 않는다. 새 시즌이 열리면 알림을 받고, 스펀오프가 나오면 곧바로 읽기 시작한다. 이 글은 합법적 무료웹툰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작가별 주소모음을 실제로 구축해 운영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풀어낸다. 덤으로 검색 과정에서 흔히 부딪히는 스팸과 불법 콘텐츠 함정도 피해 가는 요령을 정리했다.

## 무료의 의미부터 정리하자

무료웹툰이라는 말에는 여러 층위가 섞여 있다. 완전 무료, 일부 회차 무료, 기간 한정 무료, 광고 시청 뒤 무료 이용, 구독자 혜택 무료가 뒤엉킨다. 합법적으로 무료인 경우는 보통 다음 범주에 들어간다.

- 플랫폼이 상시 무료로 제공하는 오리지널 연재. 주로 신작 프로모션, 신인 발굴을 위해 운영된다.
- 정주행 이벤트나 기념일에 맞춘 기간 한정 전체 무료. 24시간, 72시간 등 제한이 붙는다.
- 일정 회차까지 무료, 이후 회차는 유료 결제 또는 기다리면 무료. 이 모델은 국내 대형 플랫폼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 공공도서관, 학교 전자도서관의 웹툰 열람. 도서관 회원 인증을 거쳐 정해진 앱이나 웹뷰에서 본다.

즉, 주소모음이나 링크모음을 만들 때는 '합법 플랫폼의 공식 작품 페이지'로만 채우는 것이 원칙이다. 외부 블로그나 포럼에서 공유하는 직링크, 파일 아카이브, 미러 사이트는 배제한다. 실제로 합법 플랫폼은 트래픽 급증 시에도 페이지 안정성과 결제, 알림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불법 미러는 악성 스크립트 삽입이나 개인정보 탈취 위험이 높고, 검색 엔진에서 일시적으로 상단에 노출되기도 하니 조심해야 한다.

## 왜 작가별 링크모음이 유리한가

작품 단위 수집은 한계가 분명하다. 시즌제로 운영되는 작품은 시즌마다 작품 페이지가 분리되기도 하고, 작가가 필명 A로 연재하다가 이후엔 본명 또는 새로운 필명 B로 넘어가는 일도 있다. 플랫폼을 옮기면서 서비스 정책이 달라져 초반 회차만 무료가 되는 식으로 바뀌기도 한다. 반면 작가별 링크모음은 다음 장점이 있다.

첫째, 신작 추적이 수월하다. 작가 페이지, 작가 SNS, 뉴스룸의 인터뷰 페이지를 함께 묶어두면, 플랫폼보다 빠르게 신작 힌트를 잡는다. 둘째, 이벤트 캐치율이 높다. 플랫폼은 특정 작가 기념전이나 IP 확장 이벤트를 자주 여는데, 이때 종합 페이지에서 여러 작품이 동시 할인 또는 기간 무료로 바뀐다. 셋째, 로컬 기록과 취향 분석이 쉬워진다. 작가별로 태그를 달아두면 추후 작품 고르는 시간이 줄고, 장르 이동 경향도 한눈에 보인다.

## 합법 플랫폼에서 작가 페이지를 정확히 찾는 방법

국내 대형 플랫폼은 대부분 작가 프로필 페이지를 제공한다. 문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종종 개편되고, 앱과 웹의 진입 경로가 달라 진입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성공률을 높이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는 플랫폼 이름과 작가명, 작품명 조합을 기본으로 쓴다. 고유명사를 큰따옴표로 묶으면 엉뚱한 결과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가명” “작품명” 사이트 검색 연산자를 함께 쓰면, 공식 도메인 안의 결과만 볼 수 있다. 불필요한 키워드가 섞이면 스팸이 난입하기 쉬우니, 결과 페이지에서 생소한 도메인이나 길게 늘어진 파라미터 링크는 일단 걸러본다.

앱 내 탐색이 더 확실할 때가 많다. 공식 앱은 작가 프로필에서 전체 작품 보기, 뉴스, 굿즈 스토어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벤트 배너는 앱 전용으로 먼저 풀리고, 웹에는 몇 시간 뒤 노출되기도 한다. 앱을 기본으로 삼되, 장기 보관용 주소는 웹 주소를 함께 저장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로그인 상태에 의존하는 앱 전용 링크는 가끔 만료되거나 외부 공유가 제한된다. 반면 웹 주소는 북마크, 스프레드시트, 노트 앱 등 어디에 붙여도 누락 없이 남는다.

작가명이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연재 플랫폼이 제공하는 직책, 장르 태그, 데뷔 연도 정보를 조합해 동일인을 판별한다. 인터뷰 기사나 수상 이력도 유용한 기준이 된다. 정보를 교차 검증하면서 모호함을 제거해야, 훗날 링크모음이 엉키지 않는다.



## 링크모음을 시작하기 전, 간단 점검표

- 목표 범위를 정한다. 특정 작가 5인처럼 좁게 시작하면 유지가 쉽다.
- 플랫폼별 공식 도메인 목록을 만든다. 가짜 미리 도메인을 걸러내는 기준이 된다.
- 메인 포맷을 결정한다. 브라우저 북마크 폴더, 스프레드시트, 노트 앱 중 하나를 기본으로 삼는다.

- 명명 규칙을 정한다. [작가] 작품 - 플랫폼 - 상태(연재/휴재/완결/단행본) 같은 패턴이 관리에 유리하다.
- 알림 수단을 확보한다. 앱 알림, 이메일 구독, 캘린더 리마인더 중 최소 하나는 켜 둔다.

## 작가별로 무엇을 모아야 운영이 편해질까

작품 링크만 모아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작가 활동을 입체적으로 추적하려면 주변 문맥을 함께 저장하는 것이 좋다. 보통 다음 항목이 도움이 된다.

작가 프로필 페이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본 허브다. 많은 경우 여기에서 연관 작품, 관련 소식, 굿즈, 출판 연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개편 시 주소 체계가 바뀔 수 있으니, 저장해 둔 날짜를 함께 표기해 두면 나중에 갱신 시점 판단이 쉽다.

작품별 작품 페이지. 시즌이 나뉘어 있으면 시즌별로 따로 저장한다. 일부 플랫폼은 시즌 병합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병합 전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 리다이렉트되기도 한다. 리다이렉트가 없는 경우에는 새 시즌 공지에서 최신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레터 등. 티저, 콘티 스케치, 휴재 공지, 단행본 소식은 보통 이 채널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 사칭 계정이 늘고 있으니 인증 배지, 링크트리 형태의 공식 주소모음을 먼저 확인한다.

출판사나 기획사 페이지. 웹툰이 단행본으로 나올 때 출판사 공지에서 예약 판매 일정, 초판 부록 정보가 공개된다. 이 정보 덕분에 팬들은 구입 시기를 맞추고, 이벤트 기간 무료회차와 단행본 발행 간격을 가늠할 수 있다.

관련 인터뷰, 행사, 영상. 온라인 간담회, 북토크, 팟캐스트 출연 같은 기록은 차기작의 방향이나 세계관 확장 힌트가 숨는다. 검색으로 찾았다면 언제, 무슨 키워드로 찾았는지 간단히 적어 두면 재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실제 구축 예시를 통해 본 필드 노하우

내가 처음 컬렉션을 본격화한 건 여름 신작 폭격 시즌이었다. A 작가는 초반 10화를 무료로 풀었다가 기다리면 무료로 전환했고, B 작가는 주말에만 48시간 전체 무료 이벤트를 반복했다. 이때 실전에서 배운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소가 바뀔 때를 대비해 식별자를 함께 기록하라는 것. 일부 플랫폼은 작품마다 고유 숫자 ID를 쓴다. 주소에 포함된 짧은 숫자나 영문 슬러그가 그것이다. 링크를 저장할 때 이 식별자를 별도 칼럼에 적어두면, 주소 체계 개편으로 경로가 달라져도 내부 검색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1년 뒤 개편에서 경로가 통째로 바뀌었지만, 식별자 검색으로 5분 만에 전부 갱신했다.

다른 하나는 이벤트와 무료 구간은 캘린더에 넣으라는 것. 무료 회차가 언제 풀리고, 언제 잠기는지 헛갈리면 놓치기 쉽다. 주간 반복 이벤트라면 캘린더에 반복 일정을 만들어 두고, 하루 전 알람을 설정한다. 이런 리마인더는 과하게 느껴져도, 막상 바쁜 주간에는 큰 힘을 발휘한다.

## 검색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법

검색엔진은 의외로 정직하다. 다만, 입력어가 지저분하면 결과도 지저분해진다. 작가명과 작품명은 큰따옴표로 묶어 정확한 매치를 먼저 시도한다. 플랫폼 도메인을 함께 적으면 노이즈가 줄어든다. 불필요한 결과를 걸러내려면 제외 연산자를 써서 광고성 키워드를 배제한다. 예를 들어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키워드나 스팸성 단어를 [스포츠무료중계 링크](#) 빼고 싶다면, 검색어 뒤에 공백, 작은따옴표 없이 제외할 단어 앞에 공백과 함께 하이픈을 둔다. 연산자 사용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크다.

긴 꼬리 키워드도 유용하다. 작가명만으로 결과가 혼잡하면, 인터뷰, 연재, 시즌2, 단행본 같은 단어를 붙여 검색 범위를 좁힌다. 언어를 바꿔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해외 번역판이 먼저 소개되는 경우라면 영문 표기를 곁들이면 의외의 공식 정보가 나온다. 이때도 공식 도메인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별한다.

## 스포츠무료중계 같은 스팸 키워드에 속지 않는 법

웹툰을 검색하다 보면 뜻밖의 낚시성 결과를 마주친다. 무료, 링크모음, 주소모음 같은 단어에 스포츠무료중계가 끼어든 페이지가 상단에 뜨는 식이다. 스포츠와 웹툰은 전혀 무관한데도, 유입을 노린 스팸이 키워드를 묶어 올린 결과다. 이런 페이지는 대개 미려나 수상한 광고 네트워크로 이어진다. 클릭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합법 플랫폼이나 작가 공식 채널을 우선하고, 그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매체 기사만 추려 본다. 검색 결과에서 도메인이 생소하고, 페이지 제목이 무작위 키워드 나열처럼 보이면 곧바로 뒤로 가기를 누른다.

##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는 구조적 접근

브라우저 북마크만으로도 시작은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스프레드시트가 빛을 발한다. 기본 칼럼은 작가, 작품, 플랫폼, 상태, 식별자, 주소, 마지막 확인일, 메모 정도면 충분하다. 상태에는 연재, 휴재, 완결, 단행본 진행, 재연재처럼 현재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값의 목록을 미리 정의한다. 마지막 확인일은 분기마다 갱신 주기를 잡을 때 기준이 된다.

주소를 붙여넣을 때는 복수 플랫폼 출처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초반 30화는 A 플랫폼에서 무료로 풀고, 이후는 B 플랫폼에서 기다리면 무료로 전환되는 구조라면 두 주소를 모두 저장해 둔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복잡해 보이겠지만, 실제 이용자는 무료 구간에 맞춰 플랫폼을 오간다. 메모 칼럼에는 무료 구간의 범위, 이벤트 주기, 단행본 발간 예정일, 작가 채널 공지 링크를 짧게 적는다.

## 브라우저와 모바일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길을 튼튼히

실제 사용성은 첫 클릭에서 갈린다. 자주 보는 작가 다섯 명 정도는 브라우저 북마크 바의 최상단 폴더에 둔다. 모바일에서는 폴더를 홈 화면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꺼내두면 훨씬 빠르다. 일부 브라우저는 폴더를 한 번 탭하면 내부 링크를 그리드로 보여 주는데, 이 방식이 스크롤보다 인지 부담이 적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 예전 시즌 링크는 폴더 내 아카이브 하위 폴더로 옮겨, 시야를 깔끔하게 유지한다.



## 추천 도구 5가지

-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협업과 이력 추적이 편하다. 버전 기록을 확인해 누가 무엇을 바꿨는지 되짚을 수 있다.
- 북마크 관리자: Raindrop.io 같은 클라우드 북마크는 태그와 썸네일 미리보기가 좋아 시각적 탐색이 빠르다.
- 노트 앱: Notion이나 Obsidian은 링크와 메타정보를 카드처럼 엮기 쉽다. 작가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계형 링크로 작품을 묶는다.

- 자동화: IFTTT, Zapier로 RSS 새 글이 뜨면 스프레드시트에 행을 추가하도록 연결하면 갱신 누락을 줄인다.
- 캘린더: 구글 캘린더에 이벤트 무료 기간 리마인더를 등록해 놓으면 회수 종료 전 몰아보기가 가능하다.

## 링크 무결성과 보안, 생각보다 중요하다

링크모음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 일명 링크 로트다. 두 달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처럼 간격을 정해 검사한다. 빠른 검사는 자동으로 할 수 있다. 링크 확인 도구를 돌려 404, 301, 302 반응을 수집해 본 뒤, 수상한 리다이렉트가 있으면 수동으로 들어가 확인한다. 리다이렉트가 공식 새 주소라면 링크를 갱신하고, 중간에 광고 네트워크로 튕기면 삭제한다.

피싱 경고가 뜨는 페이지는 즉시 컬렉션에서 제거하고, 해당 도메인을 블록 리스트에 넣는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의 보안 경고나, 운영체제의 스마트 화면 알림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오랜 동안 정리해 온 컬렉션이 한 번의 실수로 악성 코드 링크로 오염되면 신뢰가 무너진다.

## 저작권과 이용권, 경계를 분명히

무료는 조건이 붙는다. 플랫폼 약관을 읽으면 대부분 명시되어 있다. 개인적인 열람 범위를 벗어난 아카이브, 2차 유포, 링크 위장 공유는 금지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비공식 미리 주소를 돌리는 관행은 분명한 위반이고, 작가와 플랫폼 모두 피해를 입는다. 주소모음을 공개로 운영한다면 더 엄격해야 한다. 링크가 합법/공식 출처인지 매 항목마다 확인하고, 권역 제한이 있는 작품은 해당 지역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메모로 적는다.

또 하나, 무료 기간이 끝난 주소는 여전히 접근 가능하더라도 유료 전환이 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컬렉션을 참고하는 이가 추가 비용을 예기치 않게 지출하지 않도록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셈이다.

## 도메인 스푸핑을 가려내는 감각

스푸핑은 정교해졌다. 공식 도메인의 철자를 하나 바꾸거나 눈에 덜 띄는 하이픈을 넣어 비슷해 보이게 만든다. 이런 도메인은 보통 SSL 인증서 정보가 부실하고, 사이트 하단의 저작권 문구나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다. 링크를 저장하기 전, 주소 표시줄을 길게 눌러 전체 도메인을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 기관을 한 번쯤 점검한다. 모바일에서는 주소가 줄여서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 공유 버튼으로 주소를 복사해 메모 앱에 붙여 전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 메타데이터로 컬렉션의 질을 끌어올리기

링크만 모아 둔 목록은 쉽게 방대해지고, 방대해지면 무용해진다. 반대로 메타데이터를 붙인 목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른다. 장르, 테마, 연령 등급, 연재 요일, 평균 회차 길이, 컬러/흑백 여부 같은 세부 정보는 큐레이션의 기본 도구다. 특히 평균 회차 길이와 페이지 수는 주행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다. 짧고 잦은 회차는 출퇴근 시간에, 길고 목직한 회차는 주말에 몰아서 보겠다는 식으로 독서 루틴을 설계할 수 있다.

작가의 창작 패턴도 기록해 둔다. 휴재 주기, 피드백 소통 채널, 외전 공개 방식 같은 습관은 독자 경험을 크게 좌우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는 메인 연재 중간중간에 콘셉트 아트를 공개하고, 그 작품이 나중에 외전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파편 정보를 모아두면, 새 소식의 의미를 더 빨리 해석할 수 있다.

## 초보자가 자주 겪는 난관과 해법

처음엔 작가 이름과 작품 이름의 오탈자로 인한 실패가 잦다. 특히 띄어쓰기와 영문 표기의 변형이 문제다. 플랫폼에 등록된 표기를 기준으로 삼아 복사 붙여넣기를 습관화한다. 시즌 넘버링이 뒤엉키는 일도 흔하다. 플랫폼에 따라 시즌 표기가 숫자 대신 부제 형식인 경우가 있으니, 링크 제목에는 플랫폼 표기를 그대로 적고, 스프레드시트의 별도 칼럼에 자신만의 규칙으로 통일해 둔다.

또 다른 난관은 링크모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 처음부터 수십 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삼으면 세 달 안에 피로가 몰린다. 한 달에 한 작가, 혹은 주당 한 작품 링크 확장 같은 작은 목표로 시작하면 유지율이 훨씬 높다. 유지가 곧 품질이다.

## 이벤트, 재연재, 단행본 사이의 주소모음 전략

이벤트 페이지는 유통기한이 짧다. 그러나 과거 이벤트의 주소는 추후 재활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작가 기획전이 이름만 바뀌어 돌아오면, 예전 주소가 새 기획전으로 리다이렉트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이벤트 주소를 별도 섹션에 보관하되, 만료일을 메모로 적고 기한이 지나면 보관 폴더로 옮긴다.

재연재는 주소 체계가 신작처럼 취급될 때가 많다. 구작 링크를 재연재 링크로 대체하지 말고, 둘을 병렬로 둔다. 재연재에는 가끔 리마스터, 추가 컷, 후일담이 붙기 때문이다. 단행본 링크는 출판사 서점별로 분산된다. 컬렉션 성격상 다수 서점 링크보다 출판사 공식 안내 페이지를 중심으로 묶는 편이 단순하고 유지가 쉽다.

## 팀 단위로 운영할 때의 협업 팁

여러 사람이 함께 컬렉션을 가꾼다면 입력 기준을 문서화한다. 작품 상태 표기, 플랫폼 줄임말, 날짜 포맷, 링크 제목 규칙 같은 사소한 합의가 일관성을 만든다. 변경 이력은 커멘트로 남기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검증 대기 섹션에 올려 두었다가 2인 이상 확인 후 본 컬렉션에 편입한다. 주간 회의까지는 필요 없지만, 월간 점검으로 누락이나 중복을 해소하면 품질이 빠르게 오른다.

## 링크모음을 외부에 공개할 때 고려할 점

공개 컬렉션은 개인용보다 법적, 윤리적 기준이 높다. 합법 플랫폼과 작가, 출판사 등 공식 채널만 연결하고, 소셜 미디어 링크는 사칭 계정을 철저히 걸러낸다. 수익 모델을 붙일 계획이라면 광고 네트워크의 정책도 확인한다. 일부 네트워크는 성인 등급이나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페이지를 제한한다.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 모바일, 데스크톱 모두에서 가독성이 좋은 구조를 선택한다. 긴 제목은 줄바꿈을 고려하고, 플랫폼 아이콘 같은 시각 신호를 과도하게 쓰지 않는다. 시각보다 텍스트 정합성이 우선이다.

## 주소모음을 오래 쓰기 위한 리듬

링크모음은 한 번 정리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생활 패턴에 맞는 작은 리듬을 정해 둔다. 출근길 10분, 점심 후 5분, 주말 오전 20분처럼 짧은 틈에 작가 소식을 확인하고 갱신한다. 새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집중 점검을 하고, 개편 소문이 돌면 주요 플랫폼 도메인의 공지 섹션을 먼저 확인한다. 링크모음을 유지하는 시간은 결국 독서 시간을 벌어 준다. 클릭 두 번 아끼려고 전날 밤 30분을 허비하는 일이 사라진다.

## 주소모음, 링크모음이라는 도구의 본질

주소모음은 정보의 지도다. 좋은 지도는 노선을 단순하게, 랜드마크를 명확하게, 함정을 표시한다. 웹툰 컬렉션도 다르지 않다. 작가와 작품, 플랫폼과 이벤트, 단행본과 굿즈, 공식과 비공식을 또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기본기다. 무료웹툰을 넓고 깊게 즐기려면 이 기본기를 반복해 다듬어야 한다. 온라인에는 빠른 길이 많지만, 빠르다고 해서 안전하고 정당한 길은 아니다. 컬렉션은 당신만의 안전하고 정당한 길을 만든다. 여기에 시간을 쓰는 독자는 결국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 더 넓게 즐긴다.

당장 오늘은 한 명의 작가부터 시작하면 된다. 프로필 페이지와 현 연재작, 지난 시즌, 작가 채널, 출판사 공지까지 다섯 개의 링크만 모아도 첫 폴더가 완성된다. 다음 주에는 다른 한 명을, 그 다음 달에는 좋아하지만 한동안 잊고 지낸 작가를 추가한다. 어느 순간, 당신의 컬렉션은 취향의 연대기가 되고, 새 주소가 생겨도 길을 잃지 않는 지도가 된다.